우암학원 창학67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623호 1판 (음력 9월 26일) 2017년 11월 14일 화요일

RADIANT XROSSOVER NEW GENERATION RX
발견하라, 감동하라
www.hyosunglexus.com
LEXUS
광주전시장 080-384-7733
전주전시장 080-263-7743

민간 주도, 사업성 낮은 도심 재개발·재건축 지지부진

도시정비 공공 주도로 새판 짜라

광주 도시정비구역 52곳 중 공사 완료 3곳 공사중 7곳 뿐 21개 구역 조합 설립도 못해

사업성 낮아 개발 늦은 지역 정부 뉴딜사업 포함 등 필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재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성이 없어 개발 가능성이 낮은 경우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고층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등이 지연되면서 주택 및 기반시설 노후, 거주자 이주 등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인이 조합을 구성해 민간건설업체와 계약을 맺고 추진하는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 가로주택 등 52개 도시정비구역 가운데 아파트가 준공된 곳은 동구 학동 3구역 등 3곳, 공사중인 곳은 동구 지원 2-1구역 등 7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42개 구역 가운데 조합 설립조차 못한 곳이 동구 지산1구역 등 21곳에 달한다.

노후주택을 고층아파트로 개발하는 28개 주택재개발구역의 경우 9곳이 올 상반기 현재까지 정비를 맡아줄 건설업체를 구하지 못했다. 노후저층아파트를 고층아파트로 짓는 16개 주택재건축 대상 아파트 중 11곳에 참여할 건설업체가 없고, 서구 화정동 삼익 등 9개 아파트는 추진위도 구성하지 못한 상태다.

아파트 보급이 이미 '실수요'를 초과한데다 분양가 상승에 따른 원주민 이주 등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면서 향후 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과거 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형태로 층수를 높여줬으나 고층아파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 역시 불가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역, 아파트 등을 공공자금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합설립인가 문제를 둘러싸고 추진위와 북구청이 소송중인 북구 풍향동 600-1번지 일대 풍향구역이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 구역은 지난 2012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추진위의 대표성 논란이 일면서 5년째 사업이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풍향구역 주민 정모(67)씨는 "이미 인접지역은 모두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서방시장 주변만 계속 쇠락하면서 주민들이 떠나가고 있다"며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토로했다.

광주시는 일단 신중한 입장이다. 기존 정비구역의 해제 후 대표성을 갖는 주민조직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각 자치구에 신청해 추진해야 하지만 과정의 어려움은 물론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정비구역이 토지소유주와 거주자 등 이해관계인이 다른 경우가 상당수고, 토지소유주의 경우 토지가치가 오르는 고층개발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은 원주민 거주 지속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편의 증진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주택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020년까지 교역규모 2000억달러 달성"

文대통령 '한·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저는 (한-아세안 관계가)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넘어 위기 때 힘이 되어주는 '평화를 위한 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닐라 시내 솔레어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 기업투자 서밋(ABIS)에 참석, 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 한-아세안 협력 비전인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평화 공동체'는 한반도 주변 4대국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 중요한 축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방·안보와 방위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사이버위협 등 복합적 안보 위협에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제 정치철학은 아세안이 추구하는 '사람 지향, 사람 중심' 공동체 비전과 일치하는데, 미래를 함께하기 위해선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먼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상과 정상, 정부와 정부, 기업, 학생간 다층적인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나부터 임기 중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해 깊은 우정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세안이 추구하는 역내 연계성을 높일 교통·에너지·수자원관리·스마트 정보통신 등 한국과 아세안의 4대 중점 협력 분야를 제시했다. 또, "경제협력은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속도있게 이뤄지기에 아세안 관련 기금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한-아세안 협력기금 출연규모를 2019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연간 1400만 달러로 확대하고, 한-메콩 협력기금은 현재의 세 배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 2020년까지 상호 교역규모 20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고, 오늘 제시한 4개 중점 협력분야 지원을 위해 '글로벌 인프라 펀드'에 2022년까지 1억 달러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미래는 '3P' 공동체로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 공동체, 안보협력을 통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Peace) 공동체, 호혜적 경제협력을 통해 함께 잘사는 상생번영(Prosperity)의 공동체"라며 "우리는 아세안과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려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수능 D-3…시험지 배부 시작 13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가 담양교육지원청을 비롯 전국 85개 시험지구에 배부됐다. 담양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시험지를 보관 창고로 옮기고 있다. 오는 16일 수능을 치르는 광주·전남지역 수험생은 총 3만7949명이다. ▶관련 기사 7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 건립 속도낸다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통과…2020년까지 290억 투입

무등경기장 457억원 리모델링 사업도 조건부 승인

광주시의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꼽히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건립 사업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 리모델링 사업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 공원(광주공원 입구 주차공간)에 조성되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플랫폼 건립 사업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오는 2020년까지 예산 290억원(국비 145억원·145억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건립될 이 시설은 광주시가 지난 2014년 유네스코 창의도시(미디어아트 부문)에 가입한 뒤 본격적으로 건립을 추진하는 창작·교류·전시·체험 공간이다. 지하 1층에는 유네스코 미디어파크, 2층에는 미디어아트 창작·지원 시설, 3층~5층에는 미디어아트 산업지원 공간, 스튜디오, 레지던스(작가 입주공간)가 마련된다.

이번 투융자심사에서 행정안전부는 유지관리비용을 줄이고, 유료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익을 늘릴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체적인 콘텐츠 활용 방안을 만들 것 그리고 이용객을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할 것 등의 조건이 붙었다.

무등경기장 야구장 리모델링 사업도 이번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됐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등 457억원을 들여 무등경기장 야구장 일부 관람석을 철거하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새 아마추어 야구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에서는 경기장 리모델링 후 운영비용 절감과 인력 운용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증가할 경우 지방재정법령에 규정한 타당성 조사를 한 뒤 추진할 것 등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번 심사 통과에 따라 무등경기장 지하에 2층 규모(1252면)의 주차장을 건설,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본부석에는 관리실과 함께 각종 편의시설과 클라이밍장을 설치하게 된다.

또 내외야 관람석을 철거한 공간과 경기장 주변에는 풋살장, 다목적구장, 조깅트랙, 야외체육기구 등을 갖춘 체육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웰빙 지압길, 산책로, 친환경 어린이 테마파크, 보행광장, 바닥분수, 소공연장도 조성된다.

광주시 북구 임동에 자리 잡은 무등야구장은 1965년 세워져 1982년 프로야구 출범 이후 해태 타이거즈와 KIA 타이거즈의 홈구장으로 쓰였다. 이후 광주-KIA 챔피언스 필드가 건립되면서 2013년 10월 4일 경기를 끝으로 프로야구 경기는 더 열리지 않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